

세계적 컬렉터 몰린 '아트바젤'...상업성·예술성 '두 토끼' 잡다

15 June, 2016 | 김아미 기자

세계적 컬렉터 몰린 '아트바젤'...상업성·예술성 '두 토끼' 잡다

【버젤(스위스)=김아미 기자】 일반 관람객보다 VIP가 더 많은 것 같다.

13일 오후 4시(현지시간) 스위스 바젤 메세플라츠(Messeplatz) 세계 최대 미술장터 아트바젤(Art Basel)의 언리미티드(Unlimited)전을 보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날아 온 VIP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 때문에 옷깃을 여미야 할 만큼 여전히 쌀쌀한 6월의 날씨도 이 곳에서만큼은 예외였다. 언리미티드 전시장 입구에는 순식간에 긴 줄이 늘어섰고, 초대받은 손님들은 삼색인 잔을 든 채 부지런히 볼 카스를 나누며 열기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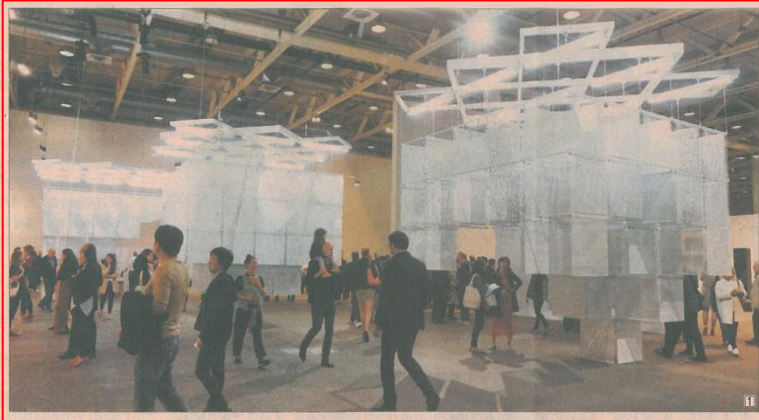
전세계 33개국 286개 갤러리가 참여하는 제47회 아트바젤이 16일 공식 개막에 앞서 언리미티드 전 오프닝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바젤 사무국과 참여 갤러리들이 초청한 VIP 컬렉터들에게만 허락된 자리다.

일반인 관람객보다 VIP가 더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트바젤은 전세계 슈퍼 컬렉터들을 한 데 불러 모은 세계 최대, 최고 아트페어로 정착성을 확립해나가고 있다. 특히 언리미티드 전시를 통해 단순히 미술품을 사고 파는 장터만이 아닌, 상업성과 예술성을 똑같이 갖춘 동시에 현대미술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한 갤러리가 한 명의 작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언리미티드전은 세계 현대미술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는 장이다. 이 전시에는 미술시장에서 작품이 잘 팔리는 작가면서 동시에 미술사적으로도 의미있는 작가들이 업선된다. 팔 그대로 상업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춘 작가들이다. 올해에는 88개 작품이 출품됐다. 규모가 큰 조각, 회화부터 영상, 설치, 퍼포먼스까지 아울러졌다.

올해 언리미티드전의 특징은 동시에 가장 핫한 작가들의 과거 작품들이 집중적으로 부각했다는 점이다. 미국 팝아티스트 제임스 로렌스 로센퀴스트(James Rosenquist·1933-)의 1982년 대형회화가 걸리는가 하면 폴 매카시(Paul McCarthy·1945-)가 유명 민화 캐릭터 피셔드 포에이트 헤드(볼 비튼 1994년작 '토마토 헤드(Tomato Head(Green))'가 다시 등장했다.

오래된 교과서에 낡아붙은 드로잉으로 미국 역사를 풍자적으로 재해석한 마이코 켈리(Mike Kelly·1954-2012)의 1989년작 'Reconstructed History'도 전시장 벽면을 채웠다. 1960년대 백남준의 케보블이 이영가르드 예술운동인 플릭시스(Flixus)



33개국 286개 갤러리 참여, 16일 개막
소장가치·작품성 있는 '핫'한 작가 업선
오프닝 '언리미티드'전에 미술계 '큰손' 복적
양혜규 작가 '솔릿윗 뒤집기'도 출품 주목

를 발전시킨 앨리스 노츠(Alison Knowles·1933-)는 1962년 선보였던 관객참여형 퍼포먼스 'Make a salad'를 직접 재연했다.

특히 최근 세계 미술계의 모던 미니멀리즘 트렌드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20세기 초반 미니멀리즘 작가들도 잇달아 재조명됐다. 일본 개념미술가 에노쿠라 코지(Enokura Koji·1942-1995)가 나무와 쓰고 버린 연진오일, 흰 천을 이용해 1978년 선보였던 설치 작품이 다시 나왔다. 미국 미니멀리즘의 거장 솔 트윗(Sol LeWitt·1928-2007)의 1993년작 'Black Styroform on the Black Wall...'과 1999년작

'Irregular Tower'는 미국 폴라루파갤러리·독인 콘라드피셔갤러리와 이탈리아 알폰소아르티아코 갤러리 2곳에서 각각 출품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국제갤러리가 양혜규 작가의 작품을 언리미티드전에 출품했다. '솔릿윗 뒤집기(2015)'라는 타이틀의 블라인드 연작으로, 하나의 블라인드 끈집이 높은 천장에 매달려 있는 형태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3개로 나뉘어 바닥에 더욱 가깝게 내려오는 형태로 변형했다.

한편 아트바젤 측은 컬렉터 층을 세분화해 미술이라는 이름의 '명품' 쇼룸에 있어 선택받은 자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폐어의 프리뷰 행사도 14일 열리는 퍼스트 초이스(First choice)가 그것이다. 역시 미리 초청된 VIP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 퍼스트 초이스 VIP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갤러리 출품작들을 먼저 '짚'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사실상 이날 판매가 갤러리 매출을 좌우한다. 이어 아트바젤 VIP 카드를 소지한 이들에게 전시장이 공개된다. 15일 연분을 포함한 미술계 전문가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베르니사주(Vernissage)가 끝난다면 이틀남인 16일부터 19일까지 일반인 관람객들도 폐어를 볼 수 있다.

최근 미국 뉴욕 미니멀리즘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박찬경 작가는 팝를 프로그램 통해 아트바젤에 참가했다. 14일 밤 10시 바젤 시립영화관(Sadleriano Basel)에서 개최되는 팝를 프로그램의 단편영화 부문 '트라우마의 소리공간' 전에서 안리 살라(Anri Sala·알바니아, 마농 드 보어(Manon de Boer·독일)의 작품과 함께 박찬경 작가의 대표작 '비행(Flyng)'을 총 65분에 걸쳐 상영한다.

amigo@

- 1] 언리미티드전에 출품된 국제갤러리 양혜규 작가의 블라인드 설치작품 '솔릿윗 뒤집기-23세로 확장 후 셋으로 나뉜, 세 개의 탑이 있는 구조물(2015)'
- 2] 미국 작가 폴 매카시(Paul McCarthy)의 1994년작 'Tomato Head(Green)'
- 3] 1960년대 전위예술운동 '플릭시스를 발전시켰던 미국 작가 앨리스 노츠(Alison Knowles·1933-)가 1962년 당시 퍼포먼스 'Make a salad'를 직접 재연하고 있다.